

국민의당 · 바른정당 ‘정책연대’ 가속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호영(왼쪽)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당의 바른정책연구소가 26일 공동 토론회를 연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정책연대 및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양당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북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당이 장기적으로 통합 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정책연대를 이뤄나가

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바른정당에 따르면 바른정책연구소는 오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수립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학진 단국대 교수(분쟁해결센터 연구위원), 조형규 서울대 교수(한국원자력학회),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오늘 양당 싱크탱크 첫 공동 토론회 개최 대북 정책 이견으로 양당 통합 논의 주춤 정책서 한목소리 내며 통합 온기 살릴 전망

사회는 강동호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이 맡고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에너지정책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다.

최 부소장은 “두 연구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론화 활동 평가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자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고 내일 토론회가 잘 마무리되면 앞으로 공동 정책연구 등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연대·통합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 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정책성 문제로 두당이 당장 통합을 하긴 어렵지만 이같은 공동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적인 차원에서부터 발을 맞춰나가면 향후 통합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합

계 만든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해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양당 체제에서 극한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왔지만 새로운 국회 환경에서 양당이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민통합포럼으로 정리되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해서 국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책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최고위원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정책연대 속도를 빨리하는 측면에서 양당이 공동정책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4당 체제에서 확인됐듯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를 하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며 “우리가 공동정책을 생산해서 대한민국을 이끌면 훨씬 생산적인 20대 국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총무실에서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치고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수훈(왼쪽부터) 주일본대사,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주중국대사, 조윤제 주미국대사.

文대통령 “4강 외교가 우리 외교 기본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가 앞으로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인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역시 4대국과의 외교가 우리 외교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총무실에서 열린 4대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북핵 미사일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에 북핵문제를 해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 전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대 국가

안 관련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 간 공조, 한미동맹 강화뿐 아니라 한미 FTA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등 난제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 공조와 함께 과거사 정리 문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 부분을 조화롭게 잘 외교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사드 문제를 넘어서 양국 관계를 우리 경제 교역에 걸맞게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러시아는 그 전까지 남·북·러, 이런 삼각 협력의

미·중·일·러 4개국 대사 신임장 수여식 文 “외교발전 위해 큰 역할 해주길 부탁”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윤제 주(駐)미국 대사, 이수훈 주일본 대사, 노영민 주중국 대사,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 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주변의 4강(중·일·러) 외교 중심에서 벗어나 아세안 국가 등으로 외교의 다변화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중·일·러의 기존 4강 외교를 벗어나서는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우리 외교에 근간이 되는 나라들이”라며 “4대국 대사를 모두 특임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운을 폈다.

이어 “4대국이 우리 외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지금의 국면, 그리고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초를 세우는 시기관점에서 (4대국익을)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대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각 나라별 중요 현

를 속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북한과의 관계가 아직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우선 러시아와 여러가지 협력관계 발전을 그 자체로서 목적을 두고 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북한까지도 삼각 구도 속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임장 수여는 의전 서열에 따라 우윤근·노영민·조윤제·이수훈 대사 순으로 이뤄졌다. 각 대사의 배우자와 경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식이 진행됐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진병현 정무수석 비서관, 조현욱 인사수석, 남관표 안보실차장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박수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인왕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환담에서 조윤제 주미대사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리나라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홍준표 “文대통령, 책임감 있었으면 방미할 필요 없었을 것”

방미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현지시간) “민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분이려면 저희가 굳이 한국의 안보상황을 미국 조야에 알리려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저희들은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제대로 북핵 안보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에 부득이 하게 올 수밖에 없었다”며 “저희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안보 목적으로 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文대통령 발언, 역할 못한 구한말 고종황제 같은 말씀” “백악관 전술핵재배치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한국식당에서 열린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리드 미국 조야에 한국상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왔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의 ‘안보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여건이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5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대통령의 그 발언은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시기에 무책임했다”며 “대한민국이 망할 때 러시아·중국·일본 틈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구한말 고종황제

뉴시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